

함정에 빠진 여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굳이 따져보자면 “마운트 아날로그”라는 제목으로 묶인 두 개의 영상과 다수의 사진 작업의 출발점은 2008년에 작가가 빈집들 사이에서 발견한 필름이었다. 하지만 그 필름에는 1988년에 올린 결혼식과 경주 신혼여행을 기록한 사진이 담겨있었으니, 그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 여행 다니는 것이 흔치 않았을 때, 경주는 갓 결혼식을 치른 부부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이는 관광지였다. 지도 속에 실제로 존재하되 각자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잡은 경주를 붙잡으려는 순간, 이율배반적인 두 갈래길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공간 속의 현전을 붙잡으려는 시도와 그 어디에도 없는 순간 속을 맴도는 방향 사이에서, 아카이브 붐의 두 층에 걸쳐 전시된 이미지들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혹은 예정된 실패로 들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파운드 푸티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며, 한때는 현재였을 낱씨를 간직하고 있다. 불국사와 대릉원 등의 대표 관광지들은 지금도 그대로 그곳에 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작가가 골라내거나 촬영한 이미지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태도로 충전되어 있다. 파운드 푸티지들 중에서 실수로 찍혔거나 주인공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인 탓에 그 시공간에 대한 성실한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미지들이 선택되어 벽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주로부터 무의식적인 지표만을 내놓는 장면들이 선택된 이유는 이러한 부재의 흔적들이 오히려 그곳에 더 빠져들게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작가를 이끌었던 사진들은 지도 상의 좌표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동시에 달아나고 말았다.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곳에 아무도 도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손짓하고 있다.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은 모순의 함정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침잠해 버린다. “콩코드 호텔”이라 명명된 프레임은 건물의 전경이 아니라 그 뒷편에 나무가 우거지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산책로를 주시하고 있다. “경주 읍성 복원현장”은 그 어떤 것의 “현장”이기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경주 동궁원”에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스타벅스”는 굳이 경주일 필요가 없었던 광경이다. 경주라는 물리적인 좌표에 도착해서는 오히려 이를 숨긴다.

이처럼 “마운트 아날로그”의 경주는 모두의 것인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물리적인 실체이지만 붙잡을 수 없는 장소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2층에 설치된 영상 작업인 “만남의 장”은 시공간의 현전을 되살려보려는 듯이 구체적인 신체와 내러티브를 통해 광주에 근거한 삶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다섯 명의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행 가이드 김학수,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은 상경하여 홀로 기념품 가게를 지키는 김남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유난히 목소리가 큰 모델 주인 박민결, 일찍이 부모님과 헤어지는 바람에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고등학생 김현주, 그리고 매일 남산을 오르며 관광객에게 농을 치는 파계승 문공. 경주에 살거나 여행 온 이들은 각자의 이름과 사연이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이다. 경주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을 때의 호황을 상기하기도 하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인물들이 사실은 이야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김남순 배역을 맡은 배우는 너무 젊은 탓에 진한 할머니 분장이 어색하다. 박민결 역의 배우는 경주 사람이라기에는 사투리가 어색했고, 곧 다른 의상을 입고 문공 역할로 다시 등장한다. 게다가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를 보완해주거나 더 현실감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별 다른 편집이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끄러움은 이 작업의 한계이기 보다 앞서 살펴본 모순을 앞에 두고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인물들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상실감은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며, 직접적인 만남은 대리자의 개입으로 인해 성립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신체와 목소리가 전면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현전은 더 멀어져 간다. 이 인물들이 경주의 이미지가 아니라 검은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더 이상 경주를 참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주”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경주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층에 설치된 영상 “Answer”는 경주 구석구석을 서행하는 화면과 함께 자막으로 르네 도말의 『마운트 아날로그』를 인용하며 현실과 상상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이 실화를 사람들에게 믿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